休

Summer & Life

현대불교 여름섹션 B1
2016년 7월 27일 수요일 제 1107 호

쉬어라 맘껏 쉬자 다시 없을 것처럼

바야흐로 염천(炎天)의 계절이다. 여름이 왔다. 다시 한번 재충전을 위한 시간이다. 많은 이들이 마치 종교 의례처럼 휴가를 떠난다.

국내외 피서지는 휴가를 즐기러 온 사람들로 북새통이다. 대부분의 휴가는 중세 카니발(Carnival)과 같다. 먹고, 마시고, 보고, 즐긴다. 오로지 소비만이 존재한다. 이 같은 소비의 향연은 스마트폰을 통해 SNS로 전해진다.

이쯤에서 던지는 질문 한 가지. "당신은 정말로 쉬고 있습니까?"

'헐즉보리(歇卽菩提)'라고 했다. 쉬는 것이 곧 깨닫는 것이란 의미다. 여기서 우리는 '쉼'의 본질을 만난다. 진정한 휴식 속에는 깨달음과 통찰이 있다. 이 속에서 빛나는 삶의 가치를 찾는다. 우리는 한가해져야 한다. 가속화된 사회일수록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. 그 음성에는 삶의 핵심 가치가 담겨 있다. 이를 통해 우리는 온전한 '쉼'에 이르는 자신만의 길을 만날 수 있다. 쉬고, 쉬고 또 쉬어보자. 꽉 찬 것이 비워질 때까지 아주 실컷. 〈관련 기사 B2 · 3면〉

신성민 기자 motp79@hyunbul.com

사진=박채완 작가 · 서체 디자인=외길 김경호 작가

B4·10·11  사찰서 보낼 수 있는 휴식
템플스테이 · 문화 축제 · 캠핑

B5·6·7  나를 위한 여름 산사
휴휴암(바다) · 홍룡사(폭포) · 반야사(계곡)

B8·9  기차로 떠나는 산사여행
산사와 연계되는 동해 · 서해 · 내륙열차들